

David Turner 박사, 요한복음, 세션 1, 소개, 1부

© 2024, 데이비드 터너, 테드 힐데브란트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데이비드 터너이고 우리는 요한복음에 대한 성경 온라인 학습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 미시간 주 그랜드 래피즈 신학교에 있습니다. John에 대한 20여개의 비디오 강의를 여러분과 공유하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가 사용할 접근 방식은 다학제적 접근 방식이 될 것입니다.

저는 만능이고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John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분야를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단지 텍스트와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시간의 일부로 우리는 본문의 역사적 배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구체적인 질문을 다룰 것입니다.

다른 때에는 문화적인 문제나 그런 것들을 조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이러한 모든 다양한 도구를 사용할 것이며 때로는 약간의 설교를 듣고 적어도 내가 생각하는 동안 오늘 본문의 적용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John에 대한 소개에 대한 두 개의 강의, 두 세트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문학적이고 신학적인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 텍스트적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따라서 시작하면서 우리는 요한이 과거에 네 복음서 중 하나로 여겨졌던 방식과 초기 교회의 네 복음서는 에스겔서의 네 생물의 관점에서 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도 묵시주의자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다루는 켈스서의 아름다운 조명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황소의 얼굴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는 관점에서 사복음서를 살펴봅니다. 이것은 황소일 것이다. 이것은 인간일 것입니다.

이것은 사자이고, 마지막으로 독수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독수리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들이 요한과 요한복음을 그렇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미시간 북부를 여행할 때 독수리를 찾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기 제가 몇 년 전에 Ludington 근처에서 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복음서를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네 생물의 관점에서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사복음서를 그 책 자체의 특징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변형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요한복음을 독수리로 생각했습니다. 특히 그들이 프롤로그를 읽기 시작했을 때 요한의 기독론이 전 세계적으로 솟아올랐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아름다운 관점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면서 우리는 우선 요한이 어떤 책인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집어 읽을 때 요한복음을 어떻게 읽나요? 신문은 어떻게 읽나요? 더 이상 우리에게 신문이 없기 때문에 신문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웹사이트가 있고, 신문에도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매일 저녁이나 매일 아침 신문이라는 구식 기사가 나왔는데, 그 안에는 다른 섹션이 있었습니다. 일부 신문은 아마도 뉴스를 접한 첫 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편집자들, 즉 신문을 쓴 사람들이 뉴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사설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연재 만화처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에게 물건을 팔려고 하는 분류된 광고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짐작할 수 있듯이 신문의 각 부분에는 의미를 전달하는 고유한 방식과 접근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첫 페이지를 읽을 때, 당신은 뉴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단지 사실만을 읽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설을 읽으면서, 당신은 그 신문을 소유한 사람들이 당신으로 하여금 사실에 대해 생각하게 하려고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만화는 분명히 당신을 웃게 만드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류된 광고를 읽으면 해당 중고차를 사고 싶은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아마도 분류 광고를 읽을 때와 첫 페이지를 읽을 때 학습 기대치가 다를 것이라고 제출합니다. 왜냐하면 분류 광고는 당신에게 무언가를 팔려고 했고, 첫 페이지는 기본적으로 단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세요.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구성하는 책들의 도서관과 거기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문헌과 비교합니다. 성경에는 이야기가 있고,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그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선호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언이 있습니다. 잠언과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현재 하고 계시는 일과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 다양한 사람들에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복음서, 특히 요한복음을 볼 때 우리는 묻습니다. 이 책이 어떻게 의미를 갖는가? 이야기 책이 하려는 일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래서 복음서로 내려갈 때 우리는 요한복음이 역사서인가 아니면 신학서인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일종의 지나치게 단순화된 표현이지만, 오늘날 여러 곳에서 John을 볼 수 있듯이 문제의 핵심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책을 단지 우리에게 예수에 대한 데이터, 정보를 제공하는 책으로 생각하니까, 아니면 우리가 특정 정치적 또는 특정 세계관을 취하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정보를 변형하려는 책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에 관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역사서인가, 아니면 신학서인가? 그리고 당신이 나와 함께 추적하고 있다면 아마도 그가 지금 무엇을 할지 알고 있다고 추측할 것입니다. 그는 그것이 둘 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그것을 알아내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이라는 장르를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역사적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신학적인 강조점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John의 경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을 네

복음서 중 하나로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은 요한이 공관 복음서와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이 매우 분명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관 복음서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 지향적이며, 요한복음은 좀 더 신학적인 면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아직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복음서를 하나의 장르로 묶어서 생각하고 있는데, 둘은 분명히 조금 다르지만 적어도 제 생각에는 차이점보다는 유사점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 더 이야기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지 역사에 관한 책, 역사의 연대기인 책은 단지 우리에게 사건을 알려주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 줄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책의 목적은 단순히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책의 스트레스는 탐구입니다. 단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주는 것뿐입니다.

그것은 과거가 사실이라는 관점에서, 단지 그것이 일어났다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신학적인 책은 사건의 중요성,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일어난 일이 해석되는 방식에 대해 더 많이 알려줍니다. 따라서 조사와 해석이라는 두 단어를 조금만 사용하면 이 문제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 생애의 사건들을 살펴보고 기록할 때 주로 과거를 조사한 것인지, 아니면 현재를 위해 과거를 해석하고, 교화하고 싶어하는 청중을 위해 기록했는지입니다. 예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요?

그리고 두 가지 활동이 모두 진행되고 있다고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의 서문은 그가 어떻게 많은 역사적 연구와 실제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을 조사하여 그의 일을 했는지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는 그들을 *autoptai* 또는 목격자라고 부릅니다.

그는 글과 구두로 전통을 어떻게 전수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존재하는 예수에 관한 정보에 자신의 정보를 추가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요한복음에는 그런 진술이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요한복음의 저자는 누가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동반자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복음서의 장르와 그 결과가 나오는 방식에 관해서는 조사와 해석에 대한 이 두 가지 아이디어가 모두 이 점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서는 단순히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죠? 우리는 왜 예수에 대해 알아야 하며, 그분에 관해 우리가 알아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역사적, 신학적 측면 외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또 다른 요소는 문학적 측면이다. 복음서, 심지어 처음 세 복음서인 공관복음만 볼 때에도 그것들은 어떤 면에서 다소 다르며, 모두 조금 다르게 만들기 위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방식에서 나름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야기는 동일하지만 일부 개별 복음서에서는 개별적인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적 창의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공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방식과 잘 어울리지 않는 요한에 관한 많은 것들이 있는 요한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우리에게 많은 자유가 있고 사람들은 이 책이 아름다운 책이라는 것을 이미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적으로도 만족스러운 책이고, 문학적 의도가 분명하게 담겨 있는 책입니다. 요한은 책 끝에서 예수님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 줄 수 있었지만, 사람들이 생명을 얻도록 믿음으로 이끄는 것들에만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선택하고 그에 따라 책을 만들도록 이끄는 특정 의제를 강조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복음서가 무엇인지, 특히 요한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이러한 유형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복음서는 예수 생애의 역사적 사건의 신학적 중요성을 창의적으로 말해줍니다. 그들은 단지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화를 이루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삶으로 변화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따라서 계속 진행하면서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의 테스트 사례를 통해 복음서의 요한에 대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매우 가슴 아픈 순간에,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이 그분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방금 그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그들 중 한 사람이 그분을 배반할 것이라는 무엇인가 그분을 깊이 괴롭게 하고 있다는 괴로운 소식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이전에 그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피터는 그런 말을 하자마자 항상 일에 몰두하고, 항상 큰 소리로 말하고,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랑하는 제자, 내 생각에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요한에게 이런 일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음식 한 조각을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종의 내부적인 방식으로 그들에게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유다에게 특별한 음식 한 조각을 주시자, 예수께서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유다는 떠난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는 매우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유다가 빵을 받자마자 나가보니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었다. 따라서 요한을 단순히 역사서로 생각한다면, 요한은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러 나갔던 정확한 시간에 대해 여기에서 우리에게 많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밤에 그 일을 했습니다. 해가 졌고, 우리는 그것이 배신이 시작된 방식에 대한 정확한 연대기적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반면에 밤이 시적이거나 은유적인 의미에 더 가깝다면 유다가 미개한 사람이었다는 의미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유다는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그의 속사람이 복음의 빛에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어느 정도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에 의해 실제로 변화되지 않았거나,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를 배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러 떠났을 때를 말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말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둘 중 일부인가요? 그것은 주로 우리에게 연대기를 제공하고 그것으로부터 약간의 도덕적 적용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주로 유다가 어떤 사람과 함께 있었는지 알려주기 위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정보?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보기에 우리는 이 복음서의 전반적인 흐름과 용어가 사용되는 전반적인 방식에 비추어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에서 밤과 빛과 어두움과 밝음이라는 용어가 엄격하게 연대순으로 사용되어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려준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이것이 단순히 역사적인 진술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기 위해 남겨진 때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다른 것, 아마도 윤리에 관한 것, 아마도 신학적인 진리에 관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 이런 종류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인상을 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확실히 유다가 나갔을 때는 밤이었는데, 역사적으로 그가 밤에 나갔다는 것은 약간 우연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깨달음이 부족한 사람이 더러운 일을 하는 것이 적절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밤에 일하세요.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생각할 때 우리는 요한복음 1장부터 생각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거기서 주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은 그가 빛이셨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 빛을 가져왔고, 빛은 그곳의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3장에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취지에 대한 부수적인 언급이 나온 후 그것은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John에게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나는 심지어 21장에서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갔을 때 밤새도록 아무 것도 잡지 못했으나 예수님께서 새벽에 도착하시자 즉시 그들을 도와 큰 고기를 얻게 하셨다는 부수적인 언급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약간의 확장 일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강조할 필요가 없는 엄밀한 역사적 세부 사항일지도 모르지만, 현실 세계가 여러 번 상징적인 함축을 갖고 있는 요한복음과 같은 책에서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너무 많이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의 요한의 첫 번째 편지에서 요한의 생각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빛 가운데 살아야 하는 삶으로 말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와 사귀어 있고 그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삶에 어두운 점이 있음을 깨달을 때 죄를 자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복음서와 연결하기가 쉽지 않은 묵시록에 대해 생각해도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 정경의 결론을 내릴 때 요한계시록의 처음 두 장을 매우 연상시키는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성경. 그 중에는 빛에 대한 강조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새 예루살렘은 등불이 쓸 데 없는 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빛이 되시고 해와 달도 쓸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 더 오래. 그래서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서신서와 묵시록에서도 빛과 어둠이 사용되는 방식을 고려할 때 유다가 밖으로 나갔을 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밤이었다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이고 역사적으로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고 싶은 진술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 역사적 진실성을 바탕으로 유다의 영적 상태의 미개한 성격과 그것이 얼마나 슬픈 상태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요한복음에서 배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 어거스틴 같은 사람과 그의 강론에서 요한에 대한 그의 논평으로만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를 위한 작은 라틴어 수업이 있습니다. *erat autem nox*, 때는 밤이었고, 나간 사람도 밤이었습니다. 이것은 어거스틴이 벌게이트를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밤이었고 나간 사람도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자신은 밤을 의인화하고 요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역사적 기반이지만 신학적으로 동기가 부여된 문서로서 많은 문학적 창의성과 탁월함, 아름다움을 지닌 요한의 예라고 볼 때 우리는 LT 존슨이 말한 것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신약성서의 서문에서 요한복음은 문체적으로는

단순하지만 상징적으로는 밀도가 높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요한복음의 장르와 그것이 의미를 갖는 방식에 관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는지, 공관복음서와 마찬가지로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공적 사역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방법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John은 이를 수행하는 몇 가지 방식에서 매우 독특합니다. 우선, 요한은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자신의 복음서에 대한 서문 또는 서문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그는 말씀이 예수를 모세와 연결하고, 예수를 세례 요한과 연결하는 것으로 예수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주 예수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궁극적인 해석의 분으로 말하고,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야기를 통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문에서 예수님을 요한이 증거한 분으로 소개하고 있고, 1장 19절에서는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장 19절부터 세례 요한의 사역과 요한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로 나아왔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신 후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시작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12장 끝까지 공개적으로 계속되는 일련의 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께서는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이를 몇 번 오가셨습니다. 그 자료는 공관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예수의 생애 중 동일한 기간을 묘사합니다.

그러나 그 자료의 대부분은 공관복음에서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예수님의 개인적인 사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이 군중을 위해 행하신 눈에 보이는 표징에서 13장부터 17장까지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나 다락방이라는 용어는 공관복음서에서 나온 용어이지 요한 자신이 사용한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다락방이라고 불러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그것은 고별 담화라고 불리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시키셨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는 돌아오고 있다. 그가 성령을 통해 어떻게 돌아오는지는 거기에서 이해하기가 다소 어렵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나중에 비디오에서 그것에 대해 더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고별 담화라고 부른다면 아마도 다락방 담화라고 부르는 것보다 요한의 용어에 조금 더 가깝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실 때를 준비시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봉사의 성격을 그들에게 보여 주시고 영적 정결에 관한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해 그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는 비록 그가 떠나더라도 보혜사, 돕는 자, 옹호자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헬라어 단어 파라클레토스를 번역하기를 원하며 그러면 성령께서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그들의 삶에서 중단하신 부분을 다시 시작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것입니다. 물론 담론의 그 부분을 마무리하기 위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성경을 구성하는 놀라운 책에서 가장 놀라운 장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예수님의 공적 사역과 13장부터 17장까지의 개인 사역에 이어 수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가 바로 요한이 돌아와서 공관복음 전통을 훨씬 더 많이 따르는 경향이 있고 그곳에 있는 많은 사건들과 평행한 설명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은 세상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한복음 16:33). 왜냐하면 그분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떻게 세상을 이겼는가? 그가 체포되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상한 방법처럼 보입니다. 그분은 체포되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승리의 성격을 보여주고, 20장의 부활 이야기 이후에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러 그곳에 없어서 그가 정말로 부활했는지 의심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 번에 오셔서 도마를 만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믿으십시오. 토마스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알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20장 끝에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는 편집 논평이 있습니다. 이 표징은 여기 이 책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여러분으로 믿고 또 여러분이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의 그 시점에서 휘장이 내려오고 책이 끝났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고 21장이 다음 페이지에서 시작되었다면 20장 끝 31절에서 멈춰서 책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저자가 추가했다고 생각하는 추가 장이 있습니다.

전혀 확신할 수 없지만 에필로그라고 부를 수는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에필로그는 본질적으로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으러 돌아왔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자신을 사랑하는지 세 번이나 물어보심으로써 베드로를 그 자리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단언할 때마다 예수님은 그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백성을 돌보는 것이라고 다시 강조하셨다.

당신은 내 양을 먹이시고, 내 양떼를 돌보십시오. 그래서 베드로는 기본적으로 그의 사역에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재확인되고 사랑하는 제자도 약간의 관심을 받기 위해 거기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증언이 참으로 사실임을 확인함으로써 서명을 마무리합니다.

그는 더 많은 글을 쓸 수도 있었지만, 온 세상 자체가 쓰여야 할 책을 모두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베드로의 사역을 재확인하는 베드로에 대한 에필로그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책에는 기본적으로 프롤로그와 에필로그가 포함된 공개 섹션과 비공개 섹션이 있습니다.

좀 더 시각적으로 살펴보면, 요한복음에는 많은 학자들이 영광의 책이라고 부르는 13장부터 17장까지가 있는데, 이 책은 예수님의 공생활인 표징의 책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는 기술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이 두 권의 책, 즉 예수의 표적을 강조하는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17장까지의 부분을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 그가 어떻게 제자들 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하고 나타내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에 요한이 이 책을 쓴 이유가 20장 끝에서 분명해진다는 통찰력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존의 열쇠는 뒷문에 숨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John이 왜, 어떻게 글을 썼는지에 대한 꽤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그는 자신이 기호라고 부르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생략했다고 말하지 않기로 선택한 많은 말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징후는 중요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 즉 1장부터 12장까지 걸쳐서 그가 접촉하게 되는 작은 삽화, 작은 에피소드, 사람들이 프롤로그의 핵심에 있는 진실을 설명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롤로그의 핵심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요한복음의 공개 부분인 1장부터 12장을 읽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만나는 이 모든 다양한 사람들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를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읽은 후 20장 30절과 31절에서 우리가 읽은 내용을 알게 됩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이 모든 장면, 예수님 이 만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보여주기 위해 제공했습니다.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심장한 사건과 표징을 살펴보고 요한복음에서 예수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면 일곱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적적인 성격의 측면에서.

물론 첫 번째는 2장에 나오는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며 다소 절제된 방식으로 행하셨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습니다.

그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다는 사실을 아는 유일한 사람은 처음부터 그에게 큰 물통을 가져온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절제된 방식으로 일을 행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그 이야기의 시작 부분에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듯이, 그분의 시간이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시점에서 그 점에 있어서 자신에게 그다지 관심을 끌려고 하지 않았습다.

다음으로 표적이라고 불리는 것은 4장 끝 부분에 나오는 왕족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인데, 그 사건은 이것이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는 말과 함께 2장의 사건과 다시 연결됩니다.

세 번째는 5개의 주랑이 있는 못에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못을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못으로 식별합니다. 이 못은 나중에 보여주겠지만 성전 단지의 북쪽 끝에 있을 것입니다. 기적의 규모에서 좀 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다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에서부터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것,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전형적으로 표징으로 확인되는 예수님이 행하신 다음 일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군중을 먹이는 일인데, 이는 네 복음서 모두에서 언급되는 예수님의 유일한 기적입니다. 그래서 군중을 고치신 것은 그들에게 광야의 만나를 상기시켜 주고자 하는 의도인데,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먹인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보내셨다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 자신은 새롭고 더 나은 종류의 만나이십니다.

그러므로 배낭 하나의 내용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빵과 물고기의 증식은 꽤 놀랍습니다.

표적으로 묘사되는 다음 사건은 바로 그 후 갈릴리 바다 위를 걷는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계속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군중을 피해 산에 올라가셨고, 폭풍이 기적적으로 잠잠해지면서 그들을 다시 만나시고,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 물을 잠잠하게 하시고 기적적으로 다시 해변에 가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폭풍을 주관하실 수 있으므로,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임을 암묵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음 일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청년을 고치는 일이 될 것인데, 내 생각엔 놀라운 일이 한 단계 더 발전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선천성 실명 상태로, 사람은 결코 앞을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픈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던 당시의 편견을 말해주는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사람의 삶에서는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이 장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모두 보게 된 청년과는 대조적으로, 자신들이 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 안에 있는 빛을 보기를 거부하는 바리새인들의 아이러니를 보여주기 위해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사용하여 끝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11장에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요한복음의 궁극적인 기적을 따라가면서 점점 더 기적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과 그분의 초기 시대에 대한 요한의 이야기에서 크게 등장합니다. 나사로의 치유, 나사로의 부활로 인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따라서 승리의 입성은 문자 그대로 나사로와 함께 예수님이 승리의 입성을 하신 것과 거의 같습니다., 그러나 거의 그런 식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인기를 더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나사로도 죽이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그를 죽이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역설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일종의 비합리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요한복음 11장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는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매우 유사한 또 다른 것은 행위라는 용어입니다. 예수의 사역은 여러 면에서 표적과 유사하므로 요한은 이 두 용어를 모두 사용하고 각각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종종 내가 하는 일은 나의 일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내 아버지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지 않고 나에게 허락하지 않은 일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요한복음의 표적은 믿음과 많은 관련이 있고, 요한복음의 표적과 믿음 사이에는 복잡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매우 놀라운 문제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인 페리코프는 그가 이 표적을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는 말로 끝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거기서 표적을 행하셨다.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2장의 끝 부분에 이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그의 표적을 보고 그를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일한 문제는 다음 구절에서 예수가 그들을 믿지 않았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에게 자신을 의탁했지만 그는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간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고, 사람들 속에 무엇이 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하게 됩니다. 이것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3장에서는 밤에 예수께 나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였다. 그가 예수께 제일 먼저 한 말은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줄 아나이다”였습니다. 당신은 이런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2장의 끝 부분에 일반적으로 묘사되는 유형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니고데모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아마도 우리가 그를 믿는 사람으로 보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믿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 그러나 요한이 진행하는 동안 니고데모에 관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요한의 표적과 믿음에 관해 불안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장에서 예수님은 왕의 신하가 표적을 보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을 노여워하십니다. 그는 치유를 원하므로 그것은 약간 짜증나는 일입니다. 6장에서 예수님은 만찬 곧 이적의 만찬을 받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보기 때문이 아니요 밥을 먹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물론 그들은 표징을 보았거나 표징을 보았고 정말로 예수를 믿었습니까, 아니면 단지 예수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물질적인 필요만 돌봐주시는 분으로 미리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표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2성전 유대교에서는 많은 경우 메시아를 메시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시아는 로마인들을 그들의 등에서 떼어 놓고 그 당시의 다윗 왕국의 영광으로 다시 데려갈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런 종류의 메시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결론은 우리가 앞서 20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도마가 어떤 의미에서 표적을 본 후에 예수를 믿게 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아마도 요한복음의 궁극적인 표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본고로 믿었으므로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행하신 다른 많은 표적에도 이 책에는 기록되지 않았다.

그래서 토마스는 신호처럼 보이는 것의 도움으로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보고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진정한 믿음보다 덜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기적을 보지 않고도 성령에 이끌려 믿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표적과 믿음의 관계를 주목하게 되는 기회를 반복적으로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John에 대한 첫 번째 비디오를 마무리하면서 이에 대한 몇 가지 좋은 소스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요한의 신학을 연구하기 위해 우리는 Andreas Kostenberger 가 쓴 Theology of John's Gospel and Letters라는 아주 훌륭한 새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신학과 이해에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책은 Richard Bauckham 과 Carl Moser가 편집한 요한복음과 기독교 신학에 관한 책입니다. Moody Smith가 쓴 요한복음 신학에 대한 훌륭하고 읽기 쉬운 접근 방식입니다. 요한복음 연구에 더 큰 영향을 미친 책 중 하나는 J. 루이스 마틴(J. Louis Martin)의 책입니다.

마틴은 요한복음이 예수에 대한 믿음 때문에 회당에서 쫓겨난 유대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 기록되었다고 믿으며, 그 사람이 있었던 9장을 포함하여 요한복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몇 군데를 언급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나았습니다. 그러므로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요한복음과 그 신학을 연구할 때 이 책들과 다른 책들을 염두에 두십시오. 첫 번째 강의의 마지막 부분으로 여기에서 이야기할 몇 가지 주제는 요한복음의 주요 주제와 아이디어입니다.

물론 요한은 서문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시자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안에 빛이 있었으니 이 빛은 세상의 생명이니라. 물론 14절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장 1절에,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최초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요한복음 1서 첫 구절과 요한계시록 19장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비슷한 진술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을 올바르게 읽으려면, 예수님을 궁극적인 존재로 특징짓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 주셨습니다. 빌립이 묻습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시면 우리가 기뻐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나를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14장).

그럼 확인해 보세요. 요한복음에서 또 다른 중요한 점은 그가 윤리적 이원론의 관점에서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방식입니다. 나는 그것을 윤리적 이원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존재론적 이원론이나 형이상학적 이원론이 아니라 관념의 이원론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탄의 반대를 받으십니다. 8장에서 예수께서 “나는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고 너희도 너희 아버지의 일을 행하느니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항의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아브라함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아브라함이 나를 믿었던 것처럼 나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매우 강한 이분법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늘과 땅, 그리고 그 곳에서 발견되는 각각의 가치 사이에 강한 이분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말한 빛과 어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빛 가운데 행하는 길로 요약되고 상징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은 어둠 가운데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다가 떠날 때 조금 전에 그것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를 다루는 다른 텍스트도 있습니다. 후속 조치를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은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예수님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는 윤리적 이원론의 패턴으로 나타나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셨던 역사 속의 사람들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선구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빛은 아니지만 빛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를 잠시 비취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말입니다. 요한 자신은 자신을 빛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원형은 모세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미묘한 모세의 모형론 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몇 편의 동영상을 통해 살펴보겠지만요.

그래서 특히 출애굽기 33장과 34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경험하려는 모세의 열망은 여기 요한복음 1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꽤 흥미로운 배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5장에서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모세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모세를 믿었더라면 성경을 믿었더라면 모세가 예수에 관하여 기록하였으므로 예수를 믿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를 옳게 하면 나도 얻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모세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모세가 보기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대신에 모세는 출애굽기 33-34장에서 부분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살아있는 컬러 HDTV, 즉 하나님의 계시를 얻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해석하고 계십니다.

1장 18절에 따르면, 그분은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분이십니다. 매우 흥미로운 단어인데, 아마도 예수님이 아버지의 품에 안겨주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가장 잘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서는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 주시고, 예수님을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의 또 다른 강조점은 파라클레토스 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 옹호자, 돕는 자, 위로자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미 1장에 언급되어 있는데, 세례 요한은 성령이 내려와 머무는 것을 내가 본 바로는 성령이 내려와 머무는 그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분은 하나님의 어린양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끝에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분명히 그 구절은 약간 모호하지만 분명히 그것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한량없이 성령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며,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한량없이 성령을 주신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무한한 방식으로 성령을 지닌 아들.

요한복음의 성령에 대한 전체 논의에서 또 다른 핵심 본문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구절에서도 예수님을 성령의 근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령이 교회에 흘러가는 것은 예수의 존재로부터이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도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본문은 성령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사람들을 향한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이 14장부터 16장까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곳에서 예수께서는 16장에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없으면 너희는 편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미친 소리로 들렸을지 생각합니다.

본질적으로 그가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내가 가지 않으면 위로자와 옹호자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위로자는 내가 가르친 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준비시킬 뿐만 아니라 세상을 유죄 판결할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제 내가 떠나고 너희가 고아가 될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가 단지 당신과 함께 있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물리적으로 당신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영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에게도 제가 그랬던 것처럼 될 것이며 제가 충족한 것처럼 여러분의 필요도 충족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어떤 의미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지속적인 현존입니다.

성령의 역할은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예수님의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누구였는지에 관한 것이고 성령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되어 그들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20장 22절에서 성령에 관한 마지막 말씀을 계속하실 계획을 세우셨을 때, 본질적으로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신 것처럼 그도 그들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는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까지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것을 얼마나 놀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요한은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본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위해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았음을 압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교회의 사명을 준비하실 때 마찬가지로 교회에 그의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22장에서 이 본문이 어떻게 오순절에 관한 신약의 성경 신학과 연결되는지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남겨 두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첫 번째

강의에서는 요한복음의 전반적인 장르와 문학적 내용, 신학을 간략하게 소개하려고 했습니다.

한 강의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은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한 책이지만, 학자들은 결코 자신들이 그것을 이해했다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복잡한 책이라는 말을 이전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때때로 그것은 개울에 물에 빠져 죽고 있는 코끼리와 같은 큰 동물에 물속으로 걸어가는 어린이에 비유됩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이 첫 번째 비디오를 통해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을 소개할 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다룰 수 없고 아직 파악하지 못한 많은 내용이 확실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다음 20개 정도의 비디오에서도 간단히 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그분의 영광과 우리에게 유익이 될 더 많은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 주실 것입니다.

첫 강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즐겼습니다. 당신도 그랬기를 바랍니다.